

# 열린마음 · 열린머리 · 열린행동을 갖춘 열린인재

정성립 <대우중공업(주) 관리본부장>

### 교육현실과 대학의 危機

얼마전 신문기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IMF 사태를 맞아 부실 금융 기관의 인수·합병에 불만을 품은 은행직원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해 은행의 정상업무를 마비시켜버린 작금의 사태를 두고 신문 기자가 이를 빗대어 사용한 용어였던 것이다. 일찍이 동양주의적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우리의 가치관으로써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최근 국가적 위기상태에 이르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듈다.

최근 서울에 온 하버드대 루딘스타인 총장은 “대학교육의 미래와 과제”라는 연설에서 “대학에서 최선의 교육이란 학생을 직업적으로 생산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사려깊고, 탐구적이고, 보다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총장이 말하는 “최선의 교육”이란 “과학자들이 예술을 음미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철학에서 수학으로, 생물학에서 외국문학에 이르기까지 순수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적 탐구를 유도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즉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인 아카데미즘(Academism)의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대학교육은 지능과 지식의 전달에 매달리기보다는 지성의 추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딘스타인 총장의 이런 주장은 현재 우리의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학부제의 현실과 경제적 경쟁력 추구라는 과제에 의해 후순위로 밀린 순수학문의 枯死와 아카데미즘의 포기라는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찾는데 근원적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인재상은 시대를 반영한다

요즘 우리는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한다. 기업은 곧 생산집단이자, 동시에 교육집단이다. 이는 지금 처절한 기업의 생존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기업은 계속적으로 종업원을 아끼고 키우며, 그들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즉 우리 국내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창출은 구성원 개개인의 평생학습 노력과 더불어 기업 특유의 인적자산(HUMAN ASSET) 축적을 위한 전략수립, 그리고 학습조직 구축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은 인간관의 변천과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는 기업 인사관리의 초석이 되는 인재상은 사회변화와 기업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경영이론의 출현에 따라 재정립 된다는 것이다. 가령 국내 D사가 최근에 재정립한 인재상

## 특집 I 교육개혁과 기업이 바라는 새로운 조선해양공학도상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열린시대, 열린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인재는 『열린마음, 열린머리, 열린행동』을 갖춘 『열린 사람』이다. 첫째 열린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인간미와 도덕성으로 충만된 성숙한 사람. 둘째, 열린 머리를 가진 사람이란 창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형의 사람. 셋째, 열린행동을 통해 희생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세계를 무대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열린시대, 열린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그 토대위에 채용에 있어서의 학력철폐, 개인 능력의 개발, 업적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인재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 시대 사람들이 지향하는 共同善(COMMON GOOD)이 담겨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결국 21세기에 요구되는 기업의 인재상은 '다양성, 유연성, 지적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인재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이 뚜렷한 인재",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재", "이질적 인재를 거부하지 않고 잘 협동할 수 있는 인재", "변화무쌍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인재", "자기분야에 열의와 실력을 갖춘 인재"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은 인적자산

조선산업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대국이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깨를 으시댄들 그리 허물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다. 현대 조선산업을 시작한지 불과 30년도 채 안되는 세월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 조선·해양인의 패거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기술 인력은 11여개 대학의 조선·해양공학 관련학과와 3개 전문대학,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가 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된 우수한 인력들이 한데 뭉쳐서 오늘날 세계 2위의 조선대국을 이룬

것이다.

21세기를 불과 2년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계 조선1위 자리를 놓고 일본과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일본에 비해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인력규모에 있어 수적인 열세에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물이 오를대로 오른 젊고 숙련된 기술인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조선산업이 잠재된 인력시장으로부터 기피당하고 매력을 잃어 날로 인력구조가 노령화되어가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인재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재육성은 조선산업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다. 승부의 핵심은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와 기술인력의 유지에 있겠다. 최근의 IMF사태를 맞아 국내 조선·해양공학 관련학과의 우수한 인재가 타분야로 빠져나가는 일이나, 기존의 유입된 인재가 타분야로 유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1세기 다가오는 미래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뚜렷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닌 인재"라면 구체적으로 기업이 바라는 『조선·해양공학도상』은 어떤 모습일까?

### 기업이 바라는 조선·해양공학도상

우선 조선·해양공학(전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열정적인 탐구력을 지닌 인재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제 국내 조선업계는 과거의 재래선종 생산에서 탈피하여 석유시추선, FPSO, LNG선, 대형해양구조물,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 등 고도의 기술집약 제품을 건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유체역학에 기초한 조선공학에서 벗어나서 모든 해양산업(Marine Industry)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습득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세계화, 국제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손꼽고 싶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이

미국내 산업의 경지를 벗어나 세계 제일의 조선 대국을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조선·해양산업을 짚어질 인재는 세계를 무대로 사고할 수 있는 국제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 것이다.

셋째로 도전의식과 창조정신이다. 이것을 “의식 INFRA”라 정의해도 될 것이다. 최근에 유입된 신세대는 이런 의식을 단순히 “보수”라고 치부하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개혁과 도전

의식(Impressive and challenging mind)은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IMF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난과 구직난속에서 혹 의기소침해 있고 실망감속에 빠져 있을 우리 미래의 인재들에게 용기를 주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우리 조선·해양공학도 또한 자신의 실력과 능력배양에 부단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정성립

- 1950년 3월 21일생
- 1972년 서울대 조선공학과 졸
- 1998년 현재 대우중공업(주) 조선해양부문 관리본부장 상무이사

## 대한조선학회 도서 안내

The book cover features the title '海洋工學概論' at the top, followed by smaller Korean text. Below the title is a large black rectangular area, likely a photograph or diagram, and the publisher's name '慶熙社' at the bottom.

이 책에서는 복잡한 해양공학 분야를 개괄적으로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조감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 가: 12,000원

구입처: 시중서점, 동명사(T.732-3455)